

잡아함36 십륙비구경

날짜: 12월 10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07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투라국(摩偷羅國)의 발제하(跋提河)가
에 있는 일산 같은 암라수원(菴羅樹園)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비구들아, 자기라는 섬[自洲]에 머무르고 자기라는 귀의처
[自依]에 머무르며, 법이라는 섬[法洲]에 머무르고 법이라는
귀의처[法依]에 머무르며, 다른 섬이나 다른 귀의처에 머무르
지 말라.

비구들아, 마땅히 바르게 관찰하여 자기라는 섬과 자기라는
귀의처에 머무르고, 법이라는 섬과 법이라는 귀의처에 머무르
며, 다른 섬에 머무르거나 다른 귀의처에 머무르지 말라.

무엇이 원인이 되어 근심 · 슬픔 · 번민 · 괴로움이 생기며, 어
떻게 이 네 가지가 있게 되며,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얹매이
게 되고, 아직 생기지 않은 근심 · 슬픔 · 번민 · 괴로움이 생기
고 이미 생긴 근심 · 슬픔 · 번민 · 괴로움이 더욱 자라는 것을
어떻게 스스로 관찰하는가?

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, 법의 눈이며, 법의 의지처이십니
다. 원하옵건대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듣고 나서 말씀대
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.”

“비구들아,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. 내 너희를 위해 설명하리라.

비구들아, 색이 있어 색을 인연하고, 색에 엄매이기 때문에 ‘아직 생기지 않은 근심 · 슬픔 · 번민 · 괴로움이 생기고, 이미 생긴 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’고 관찰하라. 수 · 상 · 행 · 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.

비구들아, 혹 항상하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며 바르게 머무르는 색이 있는가 ?

비구들이 대답하였다.

“없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비구들아, 색은 무상하다. 만일 선남자가 ‘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것으로서 탐욕을 떠나고, 번뇌를 조복받아 적멸에 들며, 묵은 업(宿業煩惱)을 소멸하게 해야 할 것이다.’라고 안다면, 본래부터 모든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인 줄 안 뒤에는 혹 색을 인연하여 근심 · 슬픔 · 번민 · 괴로움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끊어지고, 그것이 끊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.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고,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열반이라 하나니, 수 · 상 · 행 · 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.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, 16비구는 모든 번뇌[漏]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.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